

학사 졸업 논문 작성시 유의 사항

1. 대필, 표절 금지.

- 표절이란 동일성으로 판단될 만한 논지나 문장 또는 부분적 구절 등을 출처 표기(각주나 본문 설명) 없이 베껴놓아 마치 자기 것이 것처럼 인상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함. 논자의 의도 여부와는 상관없음. 표절을 피하려면,
 - 본인이 정한 논지(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논지로 쓴 논문이 이미 있는지 사전 조사가 필요함 (국회 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검색, 인터넷 해외 자료 검색, 국내외 인터넷 서점 검색: 원칙적으로 원문을 읽고 판단해야 하지만, 최소한 제목, 키워드, 초록 등은 필수 검색). 논문의 생명은 주장의 독창성임. 즉 기본 논지에 있어서 아직 아무도 주장한 적이 없는 것을 주장해야 함. 표절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라는 변명은 자신의 자료 조사 부족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됨. 논자 스스로의 사고와 학문적 성과에서 우러나온 논지라면 표절로 판단될 정도로 중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다른 사람의 논지, 아이디어, 문장, 구절의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고 인용을 하면 됨. 논문은 기본적으로 논자의 생각과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함.

2. 논문의 성격과 준비

- 논문(論文): 논리적인 글. 글이 왜 논리적이어야 하는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의 근거는 참. 논리적 과정의 결과를 참이라고 인정함. (모든 종류의 글이 논리적일까?) 왜 독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 글의 내용이 _____ 이 아닐 것이므로.
- 논문의 생명은 독창적 주장(논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부대적 기능을 하는 몸뚱이와 같음. 좋은 논문은 방대한 자료조사나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논자의 독창적 주장과 설득력으로 구성되는 것임. “연구”라는 말의 뜻을 흔히 research(자료조사)로 생각하고 “연구 논문”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임. 또 논문 제목을 「---연구」라는 식으로 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임. 논문을 쓰려면 연구를 물론 해야 하지만, 연구가 논문의 생명은 아님. 논문은 설명문, 보고문, 해설문, 요약문이 아니라 논자의 창조적 행위의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 말은 쉽고 조리 있게 할 것이며,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생각을 갖고서 생각을 차근차근 전개해야 함. 하고 싶은 말을 거두절미하고 단 한 마디로 해버리는 것은 논문의 글로서 가장 부적합함. 논문의 주장은 시종일관 한 가지 주장인데, 이것을 입증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느라고 분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임.
- 설득하는 방식은 첫째 작품의 내용(또는 언어학적 현상, 법칙, 언어교육의 제반 경험과 현상, 실험 및 조사의 결과 등), 둘째 논자 자신의 견해의 논리적 타당성, 셋째 다른 학자들의 견해에 의존하는 것임.
- 본인의 생각이 정립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상태에서 논문을 써야 함.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려면 생각을 많이 체계적으로 해야 함. 작품 등과 참고문헌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핵심 논지를 최상위로 일관된 주장하에 체계적인 정리를 해야 함. 또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그런 방식으로 습관화할 필요가 있음.

3. 논지의 성립과 전체적 구성

. 논지 선정 분야: 영미문화, 영어학, 영어와 관련된 분야.

. 논문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제목을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말로 붙이든 아니든 다른 말로 붙이든 전체적 구성은 세 부분으로 하고, 필요하면 각 부분, 특히 본론 부분을 또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하면 됨. 전체를 네 부분으로 구성한다면 2, 3부가 본론에 해당하게 됨.

<<서론>>

. 서론에서는 논문 전체에 걸쳐 주장하는 내용을 한 가지로 분명하게 나타내야 함. 이를 가리켜 논지의 단일성과 선명성라고 흔히 말함. 두루뭉술하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주장은 얼핏 무언가 주장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임. 특히 “---에 관해” “---에 관해서”라는 표현을 쓰면 추상성과 모호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또 전체적인 주장이 둘 이상으로 나열되면 안 됨. 그 경우에는 논문을 두 편 써야 함.

[나쁜 예]

1. 이 논문에서는 『햄릿』의 비극적 플롯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논문의 목적은 현대소설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2. 이 논문의 목적은 포크너의 소외 의식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다.
3. 이 논문에서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나타난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하고자 한다.
4. 이 논문에서는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가족관계 해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5. 이 논문의 목적은 이주민의 발음이라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not의 발음이 오스트레일리아 영어에서와 미국 영어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을 밝히려는 것이다.

[좋은 예]

1. 이 논문의 목적은 현대소설이 19세기의 소설과 비교할 때 인간 내면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주장(규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상식적인 논지라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 ^^)
2. 이 논문의 목적은 (의식의 흐름 작가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포크너가 인간 불행의 원인을 인물들 자신의 내면세계, 즉 성격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둘러싼 외적 환경, 즉 사회적 구조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3. 이 논문에서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 심리 분석을 한 결과) 인간 불행의 원인이 사라진 과거에 대한 리비도적 집착으로 인해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4. 이 논문에서는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가족관계의 해체가 (전통적인 가장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는 물질만능의 외적 환경보다도) 전통적인 가장의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가차 없는 물질 만능의 뒷에 야금야금 걸려들고 마는 주인공 윌리 로만의 무비판적 위선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5. 이 논문의 목적은 (이주민의 발음이라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not의 발음이 미국 영어에서와 달리 오스트레일리아 영어에서는 오늘날 영국 영어의 발음과 같게 된 연원을 연구(고찰)함으로써) 발음이 순수 언어학적 요인 이외에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결정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 이 논문의 목적은 발음이 순수 언어학적 요인 이외에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변화

하고 결정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점을 규명하기 위해 필자는 이주민의 발음이라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not의 발음이 미국 영어에서와 달리 오스트레일리아 영어에서는 오늘날 영국 영어의 발음과 같게 된 연원을 연구(고찰)할 것이다.

==> 이 논문에서는 이주민의 발음이라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not의 발음이 미국 영어에서와 달리 오스트레일리아 영어에서는 오늘날 영국 영어의 발음과 같게 된 연원을 연구(고찰)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발음이 순수 언어학적 요인 이외에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결정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나쁜 예] 이 논문의 목적은 맥베스가 일으킨 반란의 동기가 첫째 권력을 향한 자신의 의지라는 내적 동기, 그리고 그것을 부추긴 마녀들의 유혹이라는 외적 동기 등 두 가지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추동되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좋은 예] 셰익스피어 연구가들은 흔히 맥베스가 일으킨 반란의 동기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두 가지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외적 동기처럼 보이는 마녀들의 유혹도 더 깊이 성찰하면 결국 권력을 향한 맥베스 자신의 내적 동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논자 자신의 주장을 세우는 방법: 가장 흔한 방법은 기존의 연구 경향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논자가 깨달은 점을 기존의 연구자들이 보지 못했다는 점을 말하고, 작품 이해에 (또는 언어의 성질을 밝히는 데) 논자의 새로운 주장이 더 효과적이고 적합하다는 식으로 세우는 것임. 그밖에도 논자의 주장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학문적 견지에서 설득력 있게 표현하면 됨. 논자가 하는 주장의 의의, 필요성, 장점 등을 첨가하면 더 좋음.

<<본론부>>

. 본론에서 할 일은 서론에서 선명하게 제시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즉 설득력 있게 펼쳐 나가는 것임. 흔히 논지의 전개라고 말함. 중심 논지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으로 필요한 만큼 나누어 논자 스스로 정하고, 각각 증명하면 됨.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본론부를 구성할까 하는 것은 중심 논지의 규모, 논문 전체의 분량, 논지의 정당성 입증에 대한 논자 스스로의 확신 등에 의해서 정하면 됨.

[예] 위 <<서론>> [좋은 예] 2.를 예로 든다면 본론의 내용을

이제 서론에서 제시한바 포크너는 인간 불행의 원인을 외부 현실에서 더 두고 있다는 필자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8월의 빛』(Light in August)에 등장하는 세 인물 리너 그루브(Lena Grove)와 조 크리스마스(Joe Christmas), 그리고 조애너 버든(Joanna Burden)의 불행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리너 그루브의 불행의 원인은 사생아를 잉태한 상태에서 아이 아버지인 루카스 버치(Lucas Burch)와 헤어져 있어야 했던 데서 시작된다. 그런데 그들이 헤어져 지낸 것은 그루브든 버치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실업의 위협과 힘든 취업 조건 때문이었다. ... 그러므로 그녀의 불행은 내적 원인보다 급속히 산업화되어가는 당시 미국 남부 사회의 현실적 원인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조 크리스마스의 불행에는 그를 둘러싼 흑백의 인종 차별이라는 미국 사회의 편견적 제도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경우에도 불행은 그의 내적 성격으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사회적 원인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 (3) 조애너 버든의 불행은 나이에 따른 여성의 신체적 변화와 종교적 환경에서 비롯된다. ... 이렇게 그녀의 경우도 인간의 육체적 조건과 종교라는 사회적 원인, 따지고 보면 결국 외적인 원인에서 초래된 것이다.

이상 『8월의 빛』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인간의 불행은 인간 삶을 구성하는 외부 환경적 요인에서 더 크게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도출되었다.

<<결론>>

. 서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하여 논문 전체의 논지를 확인하고, 본론에서 분석한 결과가 그 논지를 입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맺으면 됨. 좀 더 멋을 부리고 싶으면, 필자가 새롭게, 독창적으로, 최초로 알아내서 주장하고 입증한 내용이 그간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저런 학문적 의문이나 과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태면 됨. 그것은 별개의 또 다른 주장이 아니라 입증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따라오는 것이므로 논지의 일관성을 손상시키지 않음.

[예] 이상으로 본론에서 분석(고찰, 규명)한 결과, 포크너는 인간 삶의 불행의 원인을 외적인 현실적 환경에서 더 찾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의식의 흐름 작가의 관심이 주로 사회적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견해를 수정할 필요를 제시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이 의식의 흐름 소설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주고, 그간 소홀이 다루어졌던 포크너를 비롯한 의식의 흐름 작가들의 사회의식에 관해 더 많은 연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인용구절, 인용문의 활용도: 논자가 수행하는 반박, 판단, 주장의 근거로서 용도를 지님.

[예]

20세기 현대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손꼽혀 온 것은 시인이 자신의 주관적 개성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비개성적인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의 시학이 근거로 삼는 것은 “Poetry is not a turning loose of emotion, but an escape from emotion; it is not the expression of personality, but an escape from personality”¹⁾라는 엘리엇(T. S. Eliot)의 유명한 말이다. [또한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이라는 엘리엇의 표현 기법도 객관의 시학을 정립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The only way of expressing emotion in the form of art is by finding an “objective correlative”; in other words, a set of objects, a situation, a chain of events which shall be the formula of that particular emotion; such that when the external facts, which must terminate in sensory experience, are given, the emotion is immediately evoked. If you examine any of Shakespeare’s more successful tragedies, you will find this exact equivalence ... The artistic “inevitability” lies in this complete adequacy of the external to the emotion; and this is precisely what is deficient in Hamlet. Hamlet (the man) is dominated by an emotion which is inexpressible, because it is in excess of the facts as they appear.²⁾

이러한 시론에 근거하여 클리언스 브룩스(Cleanth Brooks)는 현대 미국시의 소재가 “시인을 현실적인 ‘미국적’ 제재로 국한시키는” 경향을 띠었다면서, 존 크러우 랜섬(John Crowe Ransom)이 정의한 “물리적 시”(physical poetry)를 그 예로 든다³⁾. [또한 잭키 케이(Jackie Kaye)가 19세기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월트 휘트먼(Walt Whitman)의 시를 현대시의 선구로 평가하는 것은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처럼 휘트먼도 ‘외적 사건, 그러니까 증명 가능한 사건을 모방’하는 시를 쓴다”⁴⁾는 특징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현대시의 특징에 대한 브룩스와 랜섬의 견해가 엘리엇의 시론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즉 현대시가 감성을 중요한 시적 요소로 배제하는 것도 아니며, 엘리엇이 감정의 박탈을 시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1) T. S. Eliot,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1932), p. 21.

2) T. S. Eliot, “Hamlet,” *ibid.*, p. 145.

3) Cleanth Brooks, *Modern Poetry and the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p. 71.

4) Jackie Kaye, “Whitman’s Anti-Grammar of the Universe,” *Modern American Poetry*, ed. R. W. Butterfield (London: Vision Press, 1984), p. 12.

필자의 주장이다. 다음은 엘리엇 자신이 쓴 「J. 알프레드 프루프록의 연가」(“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의 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해볼까? 나는 황혼녘에 비좁은 거리를 걷다가
창문에 기대서서 밖을 내다보는 셔츠 소매 차림을 한 외로운 사내들의
파이프에서 솟아오르는 담배연기를 보았어요, 라고?

Shall I say, I have gone at dusk through narrow streets
And watched the smoke that rises from the pipes
Of lonely men in shirt-sleeves, leaning out of the window? (ll. 70-73)

화자는 얼핏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다른 사내들이 피워대는 담배연기라는 객관적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 즉 “외로운” 것은 다른 “사내들”이지 화자 자신은 아닌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 3자의 외로움을 통해서 화자가 던지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주관적 감정이다. 다만, 표현 방식이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인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표현이나 비개성적 표현은 어디까지나 표현의 기법에 관한 것이지 결코 표현의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니다. 엘리엇은 시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개인적 감정, 즉 삶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 촉발되는 감정”⁵⁾이 아니라 “실제적 감정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느낌”⁶⁾을 표현하는 것, 즉 “일상적 감정을 사용하되 그것을 시로 가공해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감정을 배제하는 뜻이 아니다. 시시각각으로 사람이 경험하는 실제적 감정은 “단순하거나 조잡하거나 재미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예술적으로 가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감정을 예술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은 ‘객관적 상관물’을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말도 시에서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 표현의 방식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필자는 “물리적 시”라는 브룩스의 표현이나 “외적 사건, ” 또는 “증명 가능한 사건”의 모방이 현대시라는 케이의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즉 현대시도 방식은 낭만주의와 다를지언정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감정과 관련된 엘리엇의 엇갈리는 듯한 태도를 이해하는 데 긴요하다. 모드 엘먼(Maud Ellmann)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엘리엇이 파운드보다 더 집요하긴 하지만) 엘리엇과 파운드 둘 다 비개성을 옹호하면서도 또한 둘 다 그 뜻을 거스르기도 한다는 점이다”⁷⁾라고 말한다. 즉 “엘리엇은 예컨대 시가 개인적 감정에서 발원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저자의 주관성이 텍스트에 널리 스며 있다는 점을 암시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러한 개입을 탐탁해하지 않는다”⁸⁾는 것이다. 필자는 엘리엇의 비개성 시론을 대하는 엘먼의 당황스러움이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그 난관이 비개성적 객관성을 주장하는 엘리엇과 감정의 필연적 개입을 인정하는 엘리엇을 피상적 현상의 차이로만 이해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한다. 낭만주의 시든 현대시든 시에서 감정의 개입은 필연적인 것이고,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주관적 노출이나 아니면 비개성적 객관화나 하는 것으로 갈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감정의 개입과 감정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얼핏 보면 모순적인 것 같은 엘리엇의 입장은 엘먼이 제기한 것처럼 이해하기 혼란스러운 것은 아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관점의 의의라면 바로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엘리엇의 시론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준다는 점일 것이다.]

5. 인용출처 각주(footnote)와 참고문헌(인용문헌) 작성의 양식(format)

(1) 인용출처 각주

pp. 4-5 각주 양식 참고. 한글 프로그램에서 Ctrl+nn 키로 작성.

5) T. S. Eliot,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p. 20.

6) *Ibid.*, 21.

7) Maud Ellmann, *The Poetics of Impersonality*, Brighton, Sussex: The Harvester Press, 1987, p. 2.

8) *Ibid.*, 3.

(2) 인용문헌

- 신원철. 「청풍을 거닐며」. 『동양하숙: 신원철 시집』. 서울: 서정시학, 2019.
- 오민석. 『현대문학이론의 길잡이』. 서울: 문학의전당, 2017.
- 윤효녕, 윤평중, 윤혜준, 정문영.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이현숙. 「실비아 플라스의 『거상』과 『아빠』에 나타난 자아 인식의 주제」. 『현대영미시연구』. 10.2 (2004 가을): 129-152.
- 조이스, 제임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성은애 역. 파주: 열린책들, 2011.
- Baudrillard, Jean. *Simulacra and Simulation*. Trans. Sheila Faria Glaser. Ann Arbor: The U of Michigan P, 1994.
- Brooks, Cleanth. *Modern Poetry and the Tradition*. New York: Oxford UP, 1965.
- Creech, James, Peggy Kamuf and Jane Todd. "Deconstruction in America: An Interview with Jacques Derrida." *Critical Exchange*. 17. (Winter 1985): 1-33.
- Derrida, Jacques. "Differance." *Speech and Phenomena and Other Essays on Husserl's Theory of Signs*. Trans. David Allison. Evanston: Northwestern UP, 1973.
- _____. "Women in the Beehive: A Seminar with Jacques Derrida." *Men in Feminism*. Eds. Alice Jardine and Paul Smith. New York: Methuen, 1987.
- Eliot, T. S.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Selected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1932.
- Ellmann, Maud. *The Poetics of Impersonality*. Brighton, Sussex: The Harvester P, 1987.
- Gross, Harvey. "Prosody." <<https://www.britannica.com/art/prosody>> Web. 20 Sep. 2018.
- Groves, Peter Lewis. "Run-on Line, Enjambment." *The Literary Encyclopedia*. <<https://www.litencyc.com/php/topics.php?rec=true&UID=338>> Web. 20 Sep. 2018.
- Kaye, Jackie. "Whitman's Anti-Grammar of the Universe." *Modern American Poetry*. Ed. R. W. Butterfield. London; Vision Press, 1984.